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5월 3일**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사55:1-7

인간은 누구나 원죄로 인하여 근본 문제 3가지에 잡혀 있습니다. 뒤에는 사단이 지금도 있고 이 사단을 꺾을 답이 그리스도이며 그의 죽으심과 흘리신 언약의 피가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것 외에는 사단의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언약과 함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응답 받고 정복할 말씀도 주십니다. 많은 경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공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각자에게 허락십니다. 내게 들어온 이 말씀은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답이 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승리하고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이 될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하여 주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삼상7장을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 언약궤를 기랏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는데 20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20년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으고 언약 회복과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가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20년 동안이나 무엇을 했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이 20년 동안을 그냥 놀았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상7:2을 보면 20년 동안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스바 운동을 하고 그때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언약을 회복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여 우상으로부터 돌아 오고 하나님은 마침 쳐들어 온 블레셋을 우뢰를 발하여 다 죽이고 잃었던 이스라엘의 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사무엘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시간표를 맞출 기다림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1.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1) 1절 말씀을 보면 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값을 매기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내 백성은 누구든지 오라 사 먹기는 사 먹되 돈은 필요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2) 2절 말씀은 너희가 왜 우상에게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속임수를 위하여 사단을 섬기냐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배부르고 기름진 것을 줄 것이라 하십니다.
3) 3절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것이며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4)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을 늘 새롭게 해 주실 것이며 내 평생의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로 나의 평생을 정복하고 내게 보내진 모든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고 꼭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5) 이 언약의 말씀이 내 평생의 망대가 될 것이며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평생의 하나님과의 소통, 안테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내주신 제자를 확립하고 지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70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미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으며 예를 들어 설명도 해 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책이 사도 행전입니다

6)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들은 사람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으로, 지금 내가 이 주간의 이 문제를 두고 받는 말씀 언약으로 …….. 말씀을 받는 너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돌아 오는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7)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약과 함께 신자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무시로 온 종일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은 것이 될 것입니다

8) 이런 완전 기도의 상태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는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9)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따라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 평생을 두고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같아서 절대로 헛되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 조금 오래 전에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 45: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내려 온 비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서 바다로 간 적도 없습니다. 반드시 땅을 적시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말도 이렇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내가 보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3)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기다려서 말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다음이고 기다림도 다음입니다. 우선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4) 오늘 혹 그냥 예배에 오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받는 것이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